침묵할 때와 말할 때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⑤ 침묵의 힘 : '거북이와 두루미'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말 많은 제자에게 들려준 거북이 전생담
아이들 비난에 거북이 마음 심하게 동요
두루미 경고 잊고 말 못 참아 비극 자초
말의 무게 · 침묵의 가치 성찰 이끄는 동화
감정 동요 시 묵언하며 마음 흐름 살펴야

평소 말이 많기도 하지만, 너무 빨리 말해서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친구가 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한 템포 쉬고!"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온다. 급한 것도 없는데 호흡을 조절하면서 천천히 말하면 알아듣기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면 그 친구는 알겠다면서 말하는 속도를 조금 줄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음에 만나면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습관은 역시 고치기 어려운 것 같다.

대학 시절 수업 시간에 어느 교수님은 이 친구를 보면서 사람에겐 두 종류가 있다고 했다.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정리돼야 말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 친구가 전자에 속한다면, 필자의 경우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유형이다.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말을 계속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기도 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이 많으면 실수 역시 잦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일상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도 행동보다는 말이 원인인 경우가 더 많다. 불교에서는 몸[身]과 입[口], 마음[意]으로 짓는 세 가지 업[三業]을 강조한다. 주목되는 것은 신업(身業)과 의업(意業)은 3개인데 비해, 구업(口業)은 4개나 된다는 점이다. 거짓말[妄語]과 아부하는 말[綺語], 이간질하는 말[兩舌], 험한 말[惡口]이 그것이다. 입으로 짓는 업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것이다.

실제로 말을 많이 하거나 빨리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거짓말이나 험한 말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1889~1951)이 한 유명한 말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그는 사실이거나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올해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32강 진출에 실패했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온갖 추측이나 종교적 언명 등은 침묵의 영역이다. 전생이나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검증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말과 침묵을 명확히 구별하면서 살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던가. 오히려 침묵할 때 말하고, 정작 말해야 할 때 침묵하면서 우리 중생들은 살고 있다.

그래서 준비한 불교 동화는 '거북이와 두루미'다. 아마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다. 원제는 '카차파 자타카(Kacchapa Jātaka)'인데, 우리말로 하면 거북이 전생담이 된다. 이 동화는 말도 많고 타인을 비방하기 좋아하던 어느 제자 때문에 설해지게 됐다. 부처님이 평소 말실수가 많은 제자를 위해 전생의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다.

옛날 한 연못에 말이 많고 무슨 일이든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거북이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뭄으로 인해 연못이 말라붙고 거북이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그러자 친구인 두루미 두 마리가 거북이를 구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낸다. 두루미는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와 양 끝을 부리로 물고, 거북이에게 가운데를 입으로 꽉 물라고 했다. 이렇게 하늘을 날아서 물이 많은 호수로 이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때 두루미는 거북이에게 신신당부했다.

"거북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돼. 말을 하는 순간 너는 떨어져 죽을 테니까."

거북이는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고 나뭇가지를 문 채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런데 두루미가 거북이를 매달고 어느 마을 상공을 지나갈 때였다. 마을에서 놀던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얘들아, 저것 좀 봐. 두루미가 바보 같은 거북이를 매달고 날아가잖아. 거북이가 참 못생겼다."

아이들이 비웃는 소리를 들은 거북이는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루미와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크게 소리쳤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거북이가 입을 떼는 순간 나뭇가지를 놓치고 땅으로 떨어져 두 조각이 나서 죽고 말았다.

묵언하면 마음이 보인다

거북이와 두루미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대중의 악플을 참지 못하고 설전을 벌이다 나락으로 떨어진 일부 연예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나 셀럽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알리곤 한다. 그 과정에서 칭찬하는 댓글도 있지만, 악의적인 반응도 많다. 악플로 인해 상처를 받고 삶이 망가진 경우가 어디 한둘이던가. 말은 언제든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험한 말을 듣고 이틀이나 밥을 먹지 못한 일도 있었다. 말은 그만큼 힘이 세다. 옛 선인들이 말을 삼가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악플을 단 사람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댓글을 달았으니 말이다. 앞서 말한 비트겐슈타인의 시선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 셈이 된다. 특히 SNS라는 열린 공간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때론 그저 재미삼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보면 이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미 도를 넘었다는 지적 또한 많은 현실이다.

동화에서도 지상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거북이가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이들이 거북이 죽음의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간접적인 것이지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거북이가 아이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들의 비난에 거북이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같은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비극적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앞에서 말한 연예인이나 셀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 동화는 단순히 말을 삼가야 한다는 교훈을 넘어 말의 무게와 침묵의 가치를 성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얼핏 보면 거북이의 행동이 어리석고 우습게 보이지만,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법구경〉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만약 깨진 놋쇠 그릇처럼 그대 자신이 동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열반에 이른 것이다. 더 이상 분노나 거친 말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깨진 놋쇠 그릇은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를 내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열반, 마음의 평화라는 뜻이다. 이는 상대의 말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生滅)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진여(眞如)의 마음이다. 우리가 법당에서 108배를 하고 명상이나 독경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침묵은 말해야 할 때와 삼갈 때를 분명히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반드시 말해야 할 때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침묵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은 동화에서 본 것처럼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면 가끔 찾아서 읽어보는 〈보왕삼매론〉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수행의 문으로 삼아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면 당연히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모든 에너지가 상대를 향한 원망으로 쏠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결국 거북이처럼 자신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묵언(默言)하면서 고요히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공부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묵언에는 분노의 감정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각종 SNS 공간에서 누리꾼들과 감정 섞인 '키보드 배틀'을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사실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든 일이다. 요즘 템플스테이에서 진행하는 묵언 수행을 자주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말할 때는 모든 에너지가 입에 집중돼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묵언하면 마음의 공간이 생겨 그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험한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이것이 침묵의 힘이자 묵언의 신비다. 동화 속 거북이에게 부족한 부분이다.

거북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 말하려는 한마디가 과연 침묵보다 가치 있을까 하고 말이다. 혹여 나를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을지 '한 템포 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